

## 『梅翁閑錄』所在 科擧談 研究\*

김 경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I. 들어가며
- II. 『梅翁閑錄』의 과거담 양상
- III. 『梅翁閑錄』의 과거담 특징
  - 1. 소론계 시각에서의 인물과 제도 비판
  - 2. 所從來를 통한 規例 이해와 현실 개탄
  - 3. 비현실적 요소를 통한 급제 실현
- IV. 나오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22S1A5C2A02093644), 2023년 한자한문연구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lt;논문 요약&gt;

이 글은 『梅翁閑錄』을 ‘科擧’라는 소재적 측면에서 구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와 관련된 모든 일화를 ‘科擧談’이라 지칭하고, 주제별로 분류한 다음, 여러 기록을 비교·대조하여 각 일화의 출처나 소재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매옹한록』 과거담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매옹한록』 과거담의 특징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반영한 사실성과 꾸며낸 이야기로 구성된 허구성 이 병존하면서도, 사실성이 보다 강조된다. 아울러 사실성이 우세한 일화에는 저자인 朴亮漢의 가계 및 소론계에 해당하는 인물과 그들의 전언을 통해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파적 색채를 드러내었다. 또한 후대 야담에서의 과거시험에 대한 비판은 주로 法制보다는 응시자의 증가에 따른 科場의 관리 및 부정행위에 의한 선발의 공정성 등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에 반해 『매옹한록』에서의 전체적인 논조는 과거가 인재 선발이라는 기본 목적을 반영하여 과거 규례에 근거한 비판 및 개탄의 특징이 확인되므로 초기 야담과 후대 야담의 특징이 병존함을 알 수 있다.

허구성의 경우, 꿈과 우연과 같은 비정상성에 해당하는 일화에서는 초기 야담에서 확인되는 엄숙한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물론 웃음이나 흥미가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비정상성인 꿈과 우연은 모두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성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도덕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매옹한록』에서 서사성의 강조된 일화는 후대 야담으로 전승된다. 『매옹한록』은 흥미보다는 초기 야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엄숙함이 우세하면서, 이와 동시에 웃음이 가미된 서사성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매옹한록』에 담긴 과거담은 내용 및 구현방식에서 17세기와 19세기 야담의 가교적 위치를 점한다.

**주제어:** 梅翁閑錄, 朴亮漢, 科擧, 野談, 科擧談, 사실성, 허구성.

## I. 들어가며

조선시대 선비에게 있어서 出世는 蔭敍를 제외한다면 科擧가 유일한 통로였다. 이에 과거를 통한 출세는 그 시대 선비라면 누구나 꿈꾸는 욕망이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 신분제가 混淆되고 양반 계층 내에서도 권력을 독점하는 閥閥 가문이 출현하면서 과거를 통한 출세는 더욱 제한적인 성격으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선비는 제한된 욕망을 꿈꿨고, 실현하거나 좌절된 꿈을 다양한 기록으로 남겼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野談이라는 기록 양식이 등장하였다. 일부 선비들은 사실과 허구를 혼합하여 자신의 욕망이나 당대의 다양한 요구 등을 야담으로 구현하였다.<sup>1)</sup> 17세기 저술된 『於野談』 이후 18~19세기를 거치며 다수의 야담집이 창작되면서 야담은 다양한 변모를 이루어 나아갔다. 다만 18세기 대다수의 야담은 노론계에 의해 저술 및 향유되었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梅翁閑錄』은 1730년대 무렵 朴亮漢(1677~1746)의 저술한 것으로, 드물게도 소론계 입장에서 저술된 자료이다.<sup>2)</sup>

『매옹한록』은 일부 속성을 주목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작품의 수용 양상 및 문학성에 관한 연구가 뒤를 이었다.<sup>3)</sup> 또한 현전하는 사본에 대한

1) 야담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다단하여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야담을 필기체 산문의 하위 범위인 雜錄類로 바라보고자 한다. 다만 야담은 서사성이 가미된 이야기적 성격이 다른 기록물보다 두드러지면서도 서사성 뿐만 아니라 역사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매옹한록』 또한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기에 야담이라 지칭하였다. 조희웅,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1, 『野談』, 보고서, 2001; 이강옥, 『한국야담연구』, 돌베개, 2006; 김준형,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39, 동방한문학회, 2009; 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2) 김민혁, 「박양한의 매옹한록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5, 1~19면 참조.

3) 이경우, 『한국 야담의 문학성 연구』, 국학자료원, 1997; 정준식, 「18세기 야담집의 동일 구전이야기 수용과 그 의미」, 『동방한문학』39, 동방한문학회, 2009.

서지 정보와 이본 대조를 통한 문헌학적 연구도 진행되었다.<sup>4)</sup> 이러한 연구를 통해 『매옹한록』은 후대 야담집인 『紀聞叢話』에 전승되었다는 점, 또한 『어우야담』과의 비교를 통해 사대부층의 實事的 요소와 神異的 요소가 병존하는 자료라는 점을 究明하였다.<sup>5)</sup> 최근에는 소재적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sup>6)</sup> 과거에 대한 일화는 일부 소개에만 그치고 있다.

근래 과거에 대한 시험 준비와 응시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기, 야담, 일기와 같은 자료들을 주목받고 있는데, 『매옹한록』에서도 과거를 둘러싼 사회 분위기와 개인의 요구를 살필 수 있다. 특히 인조반정 전후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자신 입장뿐만 아니라, 가계 및 당파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당대 국면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또한 과거와 관련된 일화에서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게다가 서사성이 가미된 이야기들까지 그 양상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과거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을 확장하기 위해 과거를 통한 『매옹한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매옹한록』을 야담이 지닌 속성을 고려하면서도 과거라는 소재적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거와 관련된 모든 일화를 과거담이라 지칭하고, 『매옹한록』에 산재된 과거담을 주제별로 분류한 다음, 여러 기록을 비교·대조하여 각 일화의 출처나 소재

4) 정순희, 「『매옹한록』에 대한 문학학적 고찰-장서각본과 天理大本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76, 한국언어문학회, 2011; 정순희, 「『매옹한록』(동양문고본) 해제」,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 센터; 문미애, 「『매옹한록』의 이본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14.

5) 임완혁은 『매옹한록』이 사대부 의식을 바탕으로 허구적인 것을 배제하고 사실적인 것을 지향하는 필기의 전통적 관점을 유지하는 저술이라는 하였다. 임완혁, 「筆記에서 사실의 의미 - 『학산한언』을 통해 본」, 『동방한문학』39, 동방한문학회, 2009, 8면. 김민혁은 『매옹한록』이 필기 문학의 지향점인 사실성과 교훈성을 다른 동시대의 필기집보다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김민혁, 앞의 논문, 57~58면 참조.

6) 문현실, 「『매옹한록』 소재 使行譚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22.

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매옹한록』 소재 과거담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 II. 『梅翁閑錄』의 과거담 양상

『梅翁閑錄』은 『梅翁閑說』, 『梅翁閑錄』, 『强懶代筆』 등 다양한 표제의 異稱이 있는 만큼이나 현전하는 이본도 다기하다. 현재까지 10종이 확인되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천리대본이 가장 善本이자 先行本으로 알려져 있다.<sup>7)</sup>

천리대본을 기준으로 하자면 『매옹한록』은 상권 154화, 하권 108화로 총 262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과거와 관련된 일화는 46개로 조선 개국에서부터 숙종 연간까지 다양한 인물의 文才, 제도 비판, 응시문화 및 풍속 등 과거와 관련된 다양한 일화를 담고 있는데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7)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천리대본을 저본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또한 이하 원문에 대한 교감과 번역은 다음 저서들을 참고하였다.(정환국, 『정본 한국 야담전집』2, 보고사, 2021; 김동욱 옮김, 『국역 매옹한록』, 보고사, 2106.) 『매옹한록』은 이본에 정리는 다음과 같으며 과거담에 대한 이본 사항은 부록으로 표기하였다.(아래 표는 정순희, 문미애, 김민혁의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함)

계열	하위 이본	표제	구성	과거담
천리대본 계열	천리대본	梅翁閑錄	2책 262화(상154+하108)	46화
	버클리대본	强懶代筆	2책 258화(상152+하106)	46화
	조선대본	梅翁閑錄	2책 247화(상143+하104)	46화
	동양문고본	梅翁閑錄	2책 243화(乾131+坤112)	44화
장서각본 계열	장서각본	梅翁閑錄	2책 164화(상90+하74)	31화
	규장각본	梅翁閑錄	2책 161화(상87+하74)	31화
한고관외사본 계열	한고관외사본	梅翁閑錄	1책 99화	24화
	패립본	梅翁閑錄	1책 99화	24화
기타 계열	야승본	梅翁閑錄	1책 146화	31화
	고려대본	梅翁寒說	1책 44화	11화

&lt;표 1&gt; 『매옹한록』 과거담 양상

연 번	구 분	작 품	등장인물	내용 및 주요 정보	분류
1	上	11	李籙	성종 때 재상 李籙의 능력	능력(배경)
2		19	金安國, 金正國	김안국 대제학으로 과거 주관과 책문 작성	안목
3		27	李廷龜	중국 선비에게 과문의 작성 방법 소개	과문
4		30	鄭太和, 尹趾完	인재는 보는 안목	안목
5		40	婦人柳氏, 洪命一	洪命一의 監試에서 진사 입격	안목
6		42	仁祖, 貞明公主, 李廷龜	춘당대 과거 시험장	응시문화
7		45	申景禎	신경진 무인으로 영의정이 된 신경진	능력(배경)
8		49	許筠, 權譚, 蔡裕後	인조반정 전후 문란한 과거	제도 비판
9		55	尹昉, 金尙憲, 尹趾完	윤방과 김상헌의 정직함	성품(배경)
10		88	趙翼	조익의 기상	기상(배경)
11		98	李景奭	향교 유생들의 강경 시험	응시문화
12		100	李景奭	과문의 격식	안목
13		103	李山海, 鄭澈, 吳允謙	40세 이후 과거에 급제한 오윤겸	능력(배경)
14		104		중국과 조선의 관리선발 제도 비교	과거제도
15		109	許曄, 許筠	하인을 글공부시켜 과거에 급제하게 한 허협	제도 비판
16		110	成璟	적서 차별	제도 비판
17		113	許穆, 趙涑	허목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정승[儒相]된 허목	성격(배경)
18		119	申晷	신경의 재치	능력(배경)
19		122	鄭廣成	집안 가법	인물(배경)
20		129	鄭載嵩	명경과로 문과 초시에 급제	능력(배경)
21		134	尹趾完	외조부인 윤지원의 과거 급제 이전 삶	능력(배경)
22		135	尹趾完	科文 공부의 회고	제도 비판

23	157	金業男, 金正男, 許筠, 李廷龜	김업남의 책문과 지동관과 사동관인 김지남의 부정행위	부정행위
24	158	李時楷, 蔡裕後	이시해가 전시의 시관 때 채유후의 시권	제도 비판
25	159	許筠, 車天輅	차천로를 숙이고 장원에 급제한 허균	능력
26	160	尹槩	꿈을 통해 알성시에서 병과에 장원한 尹槩	신이
27	161	尹舜舉	명필인 윤순거의 과거시험에서 백지 제출	급제 욕망
28	163	李岱	문장에 능했으나 급제 못한 李岱	능력(배경)
29	164	洪萬選	글재주가 뛰어남에도 하급 관리에 제한	능력(배경)
30	175	朴信圭	박신규의 인물됨 과거 급제 전후	능력(배경)
31	186	鄭太和	숙종 이후 인재 선발	제도 비판
32	187	尹趾仁	윤지인의 인재 선발 자세	제도 비판
33	196	梁應鼎	새로 급제한 이들의 면신례	응시문화
34	207	洪宇定	병자호란 후 과거 응시 포기	인물(배경)
35	209	金昌文	문장에 능했지만 겨우 급제	능력(배경)
36	214	卞煥	암송 능한 卞煥 명경과에 급제	능력(배경)
37	215	尹繼善	타고난 문장가의 장원 급제	능력(배경)
38	221	李廷龜, 閔馨男	민형남 급제와 인조반정	능력
39	223	鄭致和	『明鏡數』라는 占書에 무진년 가을 책문으로 급제	신이
40	224	趙錫胤	조석윤이 낙방하는 꿈을 여러 차례 꾸 사내	신이
41	225	許頊	안동의 선비 서울로의 응시	신이
42	226	郭天舉	아내의 꿈과 이상사의 도움으로 합격한 郭天舉	신이
43	227	尹趾完, 尹趾善, 李伋	윤지선 임인년(1662)에 급제	신이
44	228		同接의 풍속	응시 문화
45	229	韓興一	황감제. 동접으로 인해 급제	응시 문화
46	230	呂聖齊	기생의 편지로 급제	신이

『매옹한록』 소재 과거담은 야담계 자료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문집과 같은 체제가 없기에 散在되어 있다. 과거담이 상권에 22개, 하권 24개로 권수에 따른 구성이 엄밀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인물이나 주제 및 사건 측면에서 보자면 일부 구성을 갖추고 있다. 상권에서는 주로 왕이나 지도층의 정치와 관련 인물 및 사건을 담아내고 있으며, 하권에서는 사대부부터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하권의 157~164화, 221~230화에 과거담이 집중되어 있다.

내용 측면에서 보자면 『매옹한록』 소재 과거담은 야담 자료에서 흔히 확인되는 서사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일화 및 과거와 직접 관련된 일화가 병존한다. 배경에 해당하는 일화가 18개이고, 과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나 역사적 사실을 담았던 일화가 28개이다. 서사에 배경으로 활용되는 과거담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정 인물의 능력에 집중되어 있다. 본격적인 과거담의 경우에는 강경과 제술에 대한 능력, 科文에 대한 안목과 같은 文才에 해당하는 일화가 다수이지만, 응시문화에 해당하는 풍습이나 예법, 그리고 과거제도에 대한 비판 등과 같이 과거와 관련된 다방면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226화의 郭天舉(?~?)를 제외하면 모두 당대 名士들이다. 특히 李廷龜(1564~1635), 許筠(1569~1618), 李景奭(1595~1671), 蔡裕後(1599~1660)은 자주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이 중에서도 허균은 능력은 뛰어나지만, 試題를 유출한다거나 과장에서 속임수를 쓰는 등 부정한 인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박양한의 개인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지만, 허균에 대한 소론계의 평가나 당대 허균에 대한 평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매옹한록』에는 가문 및 친인척과 관련된 인물 및 그들의 傳言으로 기록된 일화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친인척은 주로 외가인데 박양한의 외할아버지인 尹趾完(1635~1718), 그의 형제인 尹趾善(1627~1704), 이들의 외할아버지인 鄭廣成(1576~1654), 정광성의 아들이자 박양



한에게는 외증조 숙부에 해당하는 鄭太和(1602~1673), 鄭致和(1609~1677) 형제가 등장한다. 이 중에서 박지완은 『매옹한록』 262편 중에서 40여 편에 등장하고 그의 증언이 상당수가 확인된다. 아울러 소론계 주인 인물로 등장하는데, 전술한 鄭太和나 蔡裕後를 비롯하여 尹昉(1563~1604), 尹舜舉(1596~1668), 呂聖齊(1625~1691) 등이 과거담에 등장한다. 따라서 『매옹한록』의 과거담은 박양한의 개인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그의 가계 및 소론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매옹한록』의 과거담은 허구성이 두드러지는 일화들도 확인된다. 주로 神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초월적 도움을 활용한 극적인 서사 전개가 두드러진다. 이 중에서 꿈은 160, 224, 226, 227화에서 등장하며 신이한 내용에서 주된 서사 장치로 두드러진다. 이외에 사주, 타인의 도움, 우연과 관련된 일화도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초월적 도움을 통해 급제라는 욕망을 실현해 나아가는데, 이를 통해 출세의 절실함과 같은 응시문화의 일단을 엿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관련해서는 인조반정 전후와 숙종 연간과 같은 특정 연대에 주목한 일화, 인재를 선발하는 시관이나 위정자들의 자세, 부정행위, 시험장 관리와 같은 문란해진 과거제도 및 이를 담당하는 관리들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일화가 과거담의 한 축을 구성한다. 야담 자료에서 제도에 대한 비판은 부정행위, 시험장 관리 등 시험 과정에서 관리 부실과 같은 측면에 주목한 일화들이 대부분이다. 『매옹한록』에도 이러한 일화가 일부 수록되어 있지만, 조선의 국내외 사정이나 애초 과거가 인재 선발이라는 기본 목적 등을 고려한 거시적인 측면에 주목한 일화가 다수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매옹한록』 소재 과거담은 과거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사건에서부터 특정 인물의 행적에 이르기까지 사실성이 두드러지는 일화들이 즐비하다. 이와 함께 허구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서사성이 짙은 일화도 병존하며 응시자 입장에서의 응시문화 등도 확인된다. 이를 주제별로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lt;표 2&gt; 『매옹한록』 세부 주제별 분류

대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해당작품(번호)
名士文才	응시자 능력	製述	19, 27, 135, 164, 215
		講經	129, 214
		인물됨	11, 88, 98, 100, 103, 113, 119, 122, 134, 159, 163, 175, 207, 221
	안목	試官의 안목	19, 100, 158
		주변 인물의 안목	30, 40
應試文化	입격자 풍습	免新禮	196
	응시장의 예법	同接	228, 229
	향시	향교 유생 강경	98
	神異	꿈	160, 224, 226, 227
		占書	223
		타인의 도움	225, 230
	합격의 욕망	낙방	161
制度批判	응시 금지	노비 응시	109
		서얼 응시	110
	시험장 관리	엄격한 출입	42
		시제 유출	49
	부정행위	시권 사본 위조	157
		숙종 연간 시험	186
		인재 선발 자세	187
		병자호란 이후 시험	207
	선발의 공정성	중국과 비교	27, 104
		지동관 사동관	157

과거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은 名士의 文才이다. 이에 해당하는 일화는 25개로 과문과 관련한 강경과 제술, 이를 알아보는 안목이다. 그리고 특정 인물의 文才를 방증하는 장치로 과문에 대한 능력이 등장하는데, 인물됨에 해당하는 일화는 대부분이 이러한 성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술하였던 야담 자료의 주된 양상인 서사의 배경이나 인물됨을 부각하는 보조적 성격에 해당하는 일화가 대다수이다. 다음 주제로는 응시문화로, 관련된 일화는 12개이다. 同接과 같은 사실적 요소와 신이함과

같은 허구적 요소가 병존한다는 점에서 당대 과거장의 모습과 과거를 통한 立身의 절실함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제도 비판과 관련된 일화는 10개로 전술하였던 거시적인 측면과 함께 지동관 사동관의 임무와 이들의 위조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도 확인된다.

이처럼 『매옹한록』 소재 과거담은 자신이 머물렀던 숙종·영조 연간의 일화뿐만 아니라 성종 연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방대한 시기에 걸쳐져 있다. 또한 저자인 박양한의 가계 및 소론계 입장에서 바라본 과거제도 및 관련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허구성이 두드러지는 일화도 다수가 확인된다. 다음 장에서 주제에 따른 3가지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과거와 관련 당대의 실상을 얼마만큼, 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 Ⅲ. 『梅翁閑錄』의 과거담 특징

#### 1. 소론계 시각에서의 인물과 제도 비판

전술하였듯, 『매옹한록』은 外家 관련 인물의 전언으로 구성된 일화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러한 일화에는 선조 이후 당쟁이나 인조반정, 병자호란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당시 소론계의 시각에서 담아내고 있다.

① 광해군 때에 간신배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사사로운 의견이 함부로 행해졌다. 대과나 소과의 급제자는 모두 사사로운 정에서 나오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져 금액의 정도가 정해지기까지 하자 국론이 들끓었다. 許筠은 ‘당나라의 신하들이 榆柳火를 하사받고 사레하다.’라는 試題를 팔아서 유출된 문제가 온 세상에 드러나 시험장에 들어가는 선비들이 그 문제가 출제되리라는 것을 다 알았다. 다수의 선비가 시험장으로 들어가면서 “불이 나온다네, 불이 나와!”라고 외쳤다. 명경과에는 사서삼경의 장구가 미리 출제되었기에 石洲 權鐸이 ‘사서삼경 암송을 통과하는 데 원하는 대로 해주지만, 남모르게 하는 것은 귀신이

알지.’라는 시를 지었으니 이때 시험이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알 수 있다. 비록 그렇다고 하나 광해군 말년에는 몇 해 동안 각과의 시험에 모든 급제자 발표를 하지 않았다.

② 인조반정 이후에는 당시의 논쟁이 팽팽히 맞서 여러 차례 과거 급제자를 취소하였다. 다만 세력가의 자제들 가운데 시험에 참여하였던 사람들로만 몇 해 동안의 모든 시험을 통합하여 다시 과거를 치르고 이를 覆試라 하였다. 그 일이 너무나 구차하고 나라의 체통을 손상하여 더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예전에 외조부님께[尹趾完] 듣기를, 광해군 때의 혼란함이 인조반정으로 인해 나라 안팎에서 눈을 씻고 태평해지기를 기대하였는데, 복시와 같은 일이 시행되자 인심이 크게 실망하여 이 뒤로는 수습할 수가 없었다. 湖洲 蔡裕後가 바로 복시에 장원급제한 사람이다. 외조부께서 채유후에게 “이때 혹시 복시에 응시하려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채유후가 “나도 갔는데, 누군들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sup>8)</sup>

인용문은 시기상으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인조반정 전후 문란해진 과거를 담아내고 있다. ①은 광해군 때 許筠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에 관한 것이고, ②는 인조반정 이후 과거제도에 관한 것인데, 외조부인 尹趾完의 전언을 통해 서술되어 있다.

먼저 ①은 광해군 연간 간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였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허균을 거론하였다. 허균의 유출한 시제는 ‘당나라 때 신하들이 榆柳火를 하사받고 사례하다[唐朝群臣謝事榆柳火]’이다. 이 시제는 1616년(광해군 8) 8월 10일에 있었던 謁聖試에서 출제되었다. 『國朝文科榜目』

8) 朴亮漢, 『梅翁閑錄』上, 49화. “光海朝, 群奸秉國, 私意橫流. 凡大小科, 皆出私情, 賄賂公行, 價之多少, 至有定規. 國言喧籍. 許筠至賣題‘唐朝群臣謝事榆柳火’, 預出題彰露, 入場士子, 皆知其當出此題. 多士入場時, 皆呼, “火出火出!” 明經科預出七書所講章句, 故權石洲詩曰, “七大文通從自願, 暗中行事鬼神知.” 其淆雜可知. 雖然, 光海末年, 累年諸科皆不唱名. 反正後, 時議崢嶸, 宜盡數罷科, 而只以勢家子弟, 有入參其中者, 遂竝累年諸榜, 更爲課試, 謂之覆試. 事極苟且, 壞損國體, 無復餘地. 嘗聞諸外王父, 廢朝昏亂, 仁祖改玉, 中外拭目, 想望太平, 覆試一事出而人心大失望, 自此, 莫可收拾. 蔡湖洲, 卽覆試壯元, 外王父嘗問湖洲曰, “是時或有能不赴者乎?” 湖洲答曰, “我亦赴, 孰能有不赴者乎?”

에 의하면 表文으로 출제되었고 李爾瞻(1560~1623)이 주 시험관으로 미리 시험문제를 유출하였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기록은 당대 『光海君日記』, 『續雜錄』이나 후대 『孤山遺稿』와 『燃藜室記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두 번째 講經에 문제를 미리 내주어 급제시켰다는 사건도 허균이 아닌 이이첨과 관련된 것임을 『承政院日記』과 『大東野乘』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0)</sup> 이 사건에는 權輿(1569~1612)의 시가 인용되어 있다. 『속잡록』과 『연려실기술』에도 동일한 시가 보이는데, 다만 저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逸史記聞』과 『荷潭破寂錄』에는 1615년 식년시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가 담겨 있다.<sup>11)</sup> 또한 『癸亥靖社錄』에 의하면 이 시험은 1618년 식년시이며<sup>12)</sup> 대북파인 이이첨이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해 사서삼경 중에서 각각 한 대문을 미리 외워 모두 합격하게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1615년 식년시부터 문제가 불거져 다음 식년시인 1618년에는 殿試를 연기하게 이르게 된다.

하지만, 『매옹한록』에서는 허균만을 거론하였고, 특히 두 번째 사건에서 허균의 벗이자, 그를 위한 변호했던 권필도 등장한다.<sup>13)</sup> 허균은 당대 및 후대에도 뛰어난 文才를 인정하면서도 과격적인 언행으로 인해 많은

9) 『光海君日記』, 「丙辰, 8月 10日」; 趙慶男, 『續雜錄』권1, 「丙辰」; 尹善道, 『孤山遺稿』권21, 「丙辰疏 【光海八年, 留中不下】」; 『燃藜室記述』권21, 「光海亂政·科場行私之弊」.

10) 『승정원일기』, 「인조 1년 4월 3일」, 「인조4년 9월 12일」; 『大東野乘』, 「癸亥靖社錄, 三月·十五日」.

11) 『逸史記聞』, “式年講經, 則所赴舉子, 預誦四書三經中, 各一大文, 臨時背講, 則無不慣通. 故大北子弟之未曾解文者, 盡科第, 七大文通從自願之句, 盛行於時.” 金時讓, 『荷潭破寂錄』, “上在閭閻時, 洞知爾瞻等欲樹私黨, 前期潛出試題使之借述, 不解文者皆登第. 式年則拈授某篇使之誦習, 而出諸講席, 有七大文通從自願之言, 故有此教. 此兩榜及丙辰謁聖乙卯式年, 爲最甚, 故當罷榜, 而其餘他榜亦多削名者.”

12) 『癸亥靖社錄』, 「伏誅類」.

13) 尹國馨, 『甲辰漫錄』, “假令科第用私情, 子弟之中姪最輕. 獨使許筠當此罪, 世間公道信難行.”

비난을 받았던 인물인데 『매옹한록』에서도 동일한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허균은 인용문의 사건 이전인 1610년(광해군 2)에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조카와 사위를 합격시켰다는 이유 유배되었다. 『광해군일기』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확인되는데, 결국 그해 12월 29일 허균을 함열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또한 허균만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파의 정치적 행위가 간여한 것이다. 하지만 허균만 처벌받았다.

주지하다시피, 허균은 대북파에 의해 희생된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매옹한록』에서도 허균을 통한 이이첨 및 大北派에 대한 비판일 수 있다. 그럼에도 逆賊의 이름으로 죽은 허균이 당대 및 후대의 野史 및 詩話에서 비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광해군일기』의 편찬자들이 그와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이고, 인조반정 뒤에 편찬되었기 때문이다.<sup>15)</sup> 복인 계열 柳夢寅의 『於野談』에서 그를 천재적 문인으로 평가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sup>16)</sup> 이를 통해 본다면 『매옹한록』에서 허균에 대한 일화는 당대 그의 대한 평가의 동조이자, 이후 박양한 가문 및 소론계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②의 주된 내용은 세력자 자제들만 覆試라는 명목으로 과거를 다시 시행한 것을 통해 인조반정 이후 과거의 문란함을 말하고 있다. 이 일화는 외조부 윤지완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론된 인물인 蔡裕後는 윤지완에게 고모부에 해당한다.<sup>17)</sup> 『국조문과방목』에

14) 허균과 관련된 일화는 49, 109, 157, 159화인데, 모두 허균에 대한 재주는 인정하면서도 사악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紀聞叢話』(연세대 본) 13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 허경진, 『허균평전』, 돌베개, 2002, 378~380면 참조.

16) 柳夢寅, 『於野談』(만종), 265화, “逆賊許筠, 聰明英發, 能作詩, 甚佳.”

17) 윤지완의 할아버지는 尹民獻으로, 그의 딸이 채유후와 결혼하였다. 또한 채유후의 손자인 蔡明胤가 윤지완에게 채유후의 문집에 서문을 요청하여 작성된 글이 「湖洲集序」인데, 이 글에서도 이 사건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尹趾完, 『湖洲集』, 「湖洲集序」. “公昔當仁祖改紀之初, 首擢魁. …… 公之從孫蔡學士明

의하면 채유후는 1623년(인조 1) 8월 12일에 있었던 文科에 장원급제하였다. 또한 改試라 하였는데, 1618년 式年試(광해 10)에는 殿試를 행하지 못하였고 1621년(광해 13) 別試는 합격자 발표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해에 와서 그때 합격한 사람을 택하여 재시험을 시행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sup>18)</sup>

이 내용은 『增補文獻備考』와 『연려실기술』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1618년 식년시에는 七大文 사건으로 인해 방방하지 못했다고 한 것은 ㉠에 언급한 것과 동일한 사건이다. 1621년 별시 사건은 일명 ‘五柳之謠’라 하는데, 다섯 사람의 柳氏를 부정으로 합격시킨 일을 풍자하여 부른 노래가 있을 만큼 문제가 되었다.<sup>19)</sup> 다섯 류씨는 광해군의 처남인 柳希奮(1564~1623) 일가를 이르는데, 그는 이이첨과 함께 소북 일파를 숙청하고 대북에 가담하여 요직을 역임하여 권력을 좌지우지했으나 인조반정에 참형을 당한 인물로 정치활동에 있어 이이첨과 같은 케이므로, 이 사건 또한 대북파의 전횡을 비판 것이다.

결국 박양한은 외조부인 윤지완에게 이러한 사건을 들었으며, 윤지완은 고모부인 채유후에게 들었던 말을 인용함으로써 당시 1623년의 改試정황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두를 전달되었던 가계 및 당대

---

胤辛勤鳩集，彙爲三編，湖南伯洪公萬朝甫將謀鉅梓，以壽其傳。蔡君之誠，洪公之義，人莫不多之，況如趾完之居常茹歎而興慨者乎!”

18) 『국조문과방목』(규귀중본). “戊午式，有七大文之議，辛酉別，有五柳之謠，一則不得行殿試，一則不得爲唱榜。是年八月十二日，擇兩科中公道者改試，講四書一經粗二上，製策又殿試坐次。策問王伯。”

19) 『增補文獻備考』권187, 「選舉考·科制」. “仁祖元年，禮曹啓，以昏朝戊午式年，有七大文之議，不爲殿試，辛酉別試，有五柳之謠，不得放榜，請議大臣，兩試合爲一榜，上可之。式年則四書一經，取粗以上，別試則策文一道，取三下以上，不拘額數，謂之會試。又更爲殿試，定其坐次，戊午入格人中十二人，辛酉入格人中十一人復入格，其餘并罷。” 다섯 류씨는 광해군의 처남인 柳希奮의 아들과 조카 4명을 이른다. 이 중 4명이 1621년 10월 20일 별시에 응시했고 다른 한 명은 같은 달 있었던 알성시에 응시하였다. 별시 급제자는 류희분의 아들 柳正立과 柳益立과 그의 조카인 柳斗立과 柳中立 4명이요, 알성시 급제자는 류희분의 아들 柳命立이다.

소론계 중심으로 유통되거나 향유되었던 일화임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당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박양한과 그의 가계의 시선을 감지할 수 있다.<sup>20)</sup>

이처럼 『매옹한록』에는 박양한의 가계 및 소론계에 해당하는 인물과 그들의 전언을 통해 인조반정과 같은 역사적 굴곡에서 과거제도의 기본 목적인 인재 선발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전술한 사건들은 실록이나 여러 자료에서도 무수히 확인할 수 있다. 『매옹한록』에서도 이들 기록과 기본적인 시각은 비슷하다. 다만 인조반정 이후 과거제도의 공정성이 재건되길 기대했으나<sup>21)</sup> 특정 권력에 의해 여전히 붕괴되는 국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판과 동시에 기대와 실망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집단이 아닌 윤지완이나 채유후와 같은 개인 차원, 더욱이 응시자의 입장에서 당대 시험에 대한 반응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다.

## 2. 所從來를 통한 規例 이해와 현실 개탄

과거에 대한 자료는 무수하지만, 주로 법전이나 실록과 같은 공적 차원의 기록이 주를 이루기에 지금까지 응시자 입장에서 과거 규례의 이해 정도 및 응시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리 깊지 않다. 이에 반해 야담 소재 과거담은 과거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과거 규례에 대한 응시자들의 이해 정도와 응시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매옹한록』에서는 무엇보다 특정 규례 및 사항이 나오게 된 내력이나 그 과정에 대한 일화가 두드러진다.

옛날에 과거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규칙은 오로지 문장의 공교로움으

20) 128화는 북벌론에 대한 宋時烈과 鄭太和의 입장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에서 소론인 정태화는 왕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인물로 기술되어 있다.

21) 『매옹한록』의 첫 일화인 「仁宗大王東方之堯舜」에는 人才의 바른 쓰임과 인조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가 있다. 김민혁, 앞의 논문, 38~39면 참조.



로 판별하였다. 士友가 그들의 친척과 지인들을 따라 모여서 글 짓는 모임을 만들고, 이를 同接이라 하였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하나의 동접이 몇 개의 무리로 나누어 함께 앉는데, 시각이 촉급하여 어느 한 사람이 주어진 시간 안에 답안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던 동접이 힘을 모아 여러 사람이 교대로 聯句를 짓듯이 답안의 한 부분을 작성하여 곧바로 답안을 완성한다. 한 사람마다 하나의 답안지를 제출하여 급제함으로써 정시나 알성시, 황감제와 같은 節日製에서 한 동접에 속한 사람들이 순서대로 급제하여 거의 낙방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 이는 태평성대의 후덕한 풍속이다.<sup>22)</sup>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벼슬 同門, 同學이라 한다. 同接 또한 같은 의미이지만, 동접은 매번 응시할 때가 다가오면 한곳에 모여 시험을 준비하였기에<sup>23)</sup> 애초 과거시험 공부를 목적으로 조직된 모임이라는 점에서 이들보다 한정적 의미를 지닌다.

인용문은 이러한 동접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시험장에서 답안 작성에 동접이 개입하는 행위를 聖代의 厚風이라 지칭한 부분이 주목된다. 국초 남의 답안을 함께 작성하는 것은 科擧의 규례로 논하면 停擧에 해당한다.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가 강화되지만, 동접 중에서 글 잘하는 사람인 接長의 답안지를 베끼는 행위는 代述과 借述이라는 부정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轉流되었다.<sup>24)</sup> 선조 연간에도 대술과 차술의 폐습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접끼리

22) 朴亮漢, 『梅翁閑錄』下, 288화. “古者, 科場試取之規, 惟文工拙是辨. 士友隨其親戚知舊, 聚成文會, 謂之同接. 入場屋, 一接分隊同坐, 或時刻急促, 一人將未能及時完篇, 則一坐同力, 累人各相遞構如聯句, 卽刻而篇成. 以一人名呈一券得捷, 如庭試謁聖及賜柑節製, 一接之人, 循序得中, 殆盡無餘. 蓋聖代厚風也.”

23) 趙翼, 『浦渚集』권33, 「亡兒進士來陽誌文」. “我國士子唯務學業. 每比試, 結伴會處攻業, 名曰同接.”

24) 다른 사람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代述,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借述이라는 하는데, 『경국대전』, 『예전』 잡령에 의하면 모두 처벌의 대상이었다. 이성무, 『韓國의 科擧制度』, 학술정보원, 2004, 254~255면 참조; 원창에 外5,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53면.

약속을 해 한편을 지어내면 다 같이 베껴 쓰는 것이다.<sup>25)</sup> 이러한 장면은 조선후기에도 확인되며, 특히 대술이 성행하였고 이들을 巨擘이나 乳母라 칭하면서 전문적으로 대술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다.<sup>26)</sup>

그렇다면 『매옹한록』에서 부정행위의 중심으로 자리한 대술과 차술에 연원이라 할 수 있는 동접끼리의 공동 답안 작성을 미풍양속으로 여겨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매옹한록』에서는 과거시험의 목적이 인재 선발이고, 선발의 기준이 문장의 정교함[文工]이라 하였다.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었을 때, 동접끼리는 선발이라는 제한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다. 즉 애초의 동접은 합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모임이지만, 이들은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저마다의 문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협력자 집단이다. 따라서 『매옹한록』에서는 동공 답안 작성을 합격을 위한 협력 행위로 보아 미풍이라 여긴 것이다. 이러한 점은 228화에서도 확인된다. 동접의 협력은 문장력의 향상을 통한 급제의 실현에 있었지만, 지금은 협력은 사라지고 심지어 가족이라도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행태를 비판하였다.<sup>27)</sup>

이처럼 동접의 시작은 선량한 공동체적 성격에서 출발하였지만, 경쟁이 심화되고 공정이 무너지면서 동접은 부정행위의 온상으로 전변하게 된다. 특히 조선후기 영조·정조에 연간에 대표적인 부정행위의 사례로 등장하며<sup>28)</sup> 순조 연간에는 합격을 위해 동접을 맺으려 일부로 접근하는

25) 『선조실록』권182, 「선조 37년(1604) 12월 8일」. “近來士習, 乖悖已甚, 場屋之間, 借述之弊, 公然恣行, 極爲駭愕. (中略) 到今則習以爲常, 恬不爲恥, 同接之中, 公然相約, 製出一篇, 舉接皆書之. 甚者, 成羣怯奪他人之作, 相攘之際, 鬭詰紛然, 試場幾爲戰場, 言之可恥.”

26) 黃胤錫, 『頤齋閑藁』(한중연 간행) 2책, 311쪽 11월 25일. 박현순, 『조선 후기의 科擧』, 소명, 2014, 201~202면 참조.

27) 朴亮漢, 『梅翁閑錄』下, 289화. “今則齷齪奔競, 惟利視趨, 父子兄弟, 雖至四五人, 亦皆各以其名呈券, 那得見此風哉?”

28)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병진 1월 15일」에 의하면 同接끼리 도와서 요행히

행위들도 확인된다.<sup>29)</sup> 이러한 이유로 조선후기에는 자신의 文才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동점의 도움을 받지 않음을 거론하기도 하였다.<sup>30)</sup>

① (前略) 金業男이 또 殿試를 보러 갔을 때 그의 아우인 龍溪 金止男이 지동관과 사동관이었다. 자기 형이 쓴 시권을 찾아내 촛불 아래 읽다가 “우리 형님께서 이번에는 급제하겠네.” 하다가 또 읽어보다 놀라서 “조목조목 내려가다가 한 구절을 빠뜨리셨으니, 이를 어찌하나?” 하였다. 함께 지동관과 사동관으로 있던 자 또한 그의 친한 벗이었는데, 그도 “아깝네!” 하였다. 마침내 김지남은 붉은 글씨로 시권 옆에다 여덟 글자를 써넣었다. 김업남이 과연 장원으로 뽑혔는데 김업남이 썼던 시권을 펼치자 붉은 글씨 여덟 글자가 드러나게 되었다. ② 대개 우리나라의 과거시험 규례는 시험관이 응시자의 필적을 알아보고 부정을 저지르거나 앓을까 하여 시험장에서 시권을 걷은 뒤 붉은 글씨로 다른 종이에 베껴 썼다. 또한 문신들 가운데 지동관과 사동관을 따로 정하여 서로 번갈아 읽으면서 원본과 서로 대조하게 하여 시권 원본에 기록하는 것을 ‘지동’, 붉은 글씨의 사본에 기록하는 것을 ‘사동’이라고 하였다. 그런 뒤에 붉은 글씨의 사본을 시험관에게 올려 선별하였다. 보관한 원본은 급제자를 발표한 뒤에 꺼내어 대조해 보는 것이 상례이다. 시험장 안에서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검은 먹 쓰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붉은 글씨로 사본을 만들었다. ③ 일이 발각된 뒤 조정에서는 이조에 사실을 밝히게 하고, 김업남의 이름을 급제가 명단에서 삭제하였으며, 그의 아우인 김지남과 그 친구는 모두 유배를 보냈다. (後略)<sup>31)</sup>

급제하는 자가 많다고 하였고, 「정조 즉위년 병신(1776) 10월 15일」에 의하면 조헌철은 초시와 회시에서 모두 策問으로 입격하였는데, 동점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 실토하였다.

29) 尹愔, 『無名子集』14冊, 「記世態」.

30) 李宜顯, 『陶谷集』권20, 「亡子行錄」. “及入會圍, 聞其不資於同接, 兀坐究思. 自作自書.”

31) 朴亮漢, 『梅翁閑錄』下, 157화. “(前略) 金又赴殿試, 其弟龍溪爲枝查同官, 搜得其兄作, 燭下讀之, 曰, “吾兄今始大闢矣.” 又讀之, 驚曰, “逐條一句落, 將奈何?” 其同爲枝查者, 亦親友, 亦曰, “可惜!” 遂以朱筆傍書八字, 金果以壯元見擢, 及發其本草, 朱書八字遂露. 蓋我國科擧之規, 恐考官之以筆跡行私, 試闈收券之後, 以朱筆易書他紙. 又以文臣別定枝同查同官, 交讀而互準, 書於本草曰枝同, 朱草曰查同, 而上其朱草於考官而考之, 藏其本草, 拆榜後出而準之, 例也. 鎖院中, 禁墨以防奸, 故寫以朱筆也. 事覺後, 朝廷下吏查之, 金拔榜, 其弟與友俱竄.

전술한 일화는 응시자 입장의 문화라면, 위 인용문은 관리자 입장인 枝同官과 查同官, 그리고 易書의 연원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 일화는 金業男(1552~1623)의 殿試 응시가 배경인데, 이때 그의 동생인 金止男(1559~1631)이 지동관·사동관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시기로 보자면 김업남은 1590년 진사에 합격하였고, 김지남은 1591년 생원진사 및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으므로, 宣祖 연간이 배경임을 알 수 있다.<sup>32)</sup>

이 일화가 과거담 측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②단락으로 지동관·사동관에 관한 서술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試官 이외 나머지 관원을 差備官이라 하는데, 지동관·사동관도 이에 해당한다.<sup>33)</sup>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지동관·사동관은 답안의 필체나 표식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인 易書에서 언급된다. 역서는 식년시·별시·증광시의 문에만 적용되었는데, 제출한 답안을 謄錄官에게 넘기면 등록관이 書吏를 시켜 붉은 먹으로 답안을 다시 쓰게 하는 것이다.<sup>34)</sup> 이 일화와 가장 근접한 시기인 1553년 제작해 인출한 『科擧事目』에 의하면 문과에서 제술로 시험을 볼 때 역서를 하였고, 이는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後略)

32) 『선조실록』권122, 「선조 33년 2월 16일」 기사에 의하면 김지남이 試所에서 罷黜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이 일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확인할 수 없으나, 시관으로 참여했던 것을 통해 1600년대 무렵으로 추측된다.

33) 『기문총화』127화에 의하면 조선의 과거제도는 收券官·封彌官·枝同官·易書 등의 일은 모두 원나라 제도를 따른 것이라 하였다. “國朝科擧之法, 漸備糊名卷首與高麗同, 其收券官封彌官枝同官易書等事, 皆遵元朝制.”

34) 역서는 문과에서만 하되 친림시에서는 하지 않았다. 이성무, 앞의 책, 218면.

35) 『科擧事目』(고려대본), 35~47면. “文科製述時, 每所封彌官·謄錄官·收卷官·查同官·枝同官乙良, 依前例令吏曹差定.” “近來檢舉欠嚴, 朝士守令應舉人及宰相朝官子弟土豪儒生入場者, 隨從人至亦率入, 以致場中亂雜叱分不喻, 生員進士試段, 易書不冬, 不無兼取書字之意是白去乙, 不善寫儒生等, 率入吏胥貢生雜類中能寫人, 使之代書爲白臥乎所, 尤于猥監爲白昆.” 한편 역서를 담당하는 관원으로 忠贊衛와 忠順衛는 병조에서, 書吏는 吏曹에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每所易書忠贊衛·忠順衛乙良, 兵曹書吏乙良, 吏曹爲等如依前例定送.” 『대전통편』에

인용문의 이러한 역서 및 지동관과 사동관의 나오게 된 내역, 또 그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특히 “鎖院中, 禁墨以防奸, 故寫以朱筆也.”라는 서술에서 역서의 과정에서 朱筆으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所從來를 통해 일화에 등장하는 김지남이 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된다. 김지남은 사동관에 해당하므로 사본에다 붉은 글씨를 써야 하지만, 원본 즉 자신 형의 답안에 붉은 글씨로 빠진 구절을 써서 넣었으므로 부정행위이다. 따라서 급제한 김업남은 拔擢되었고, 김지남은 유배에 처하게 되었다.

이처럼 역서라는 제도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답안을 변조하거나 글씨를 고쳐 쓰는 행위들이 빈번하였다.<sup>36)</sup> 『경국대전』에 의하면 杖 100대 및 두 번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정지하였고,<sup>37)</sup> 『典錄通考』에 의하면 역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였으며,<sup>38)</sup> 『대전통편』에 의하면 朱草할 때 농간을 부린 자는 3 천리 밖으로 귀양보내고 하였다.<sup>39)</sup>

서는 모두 성균관 관원 중에서 차출하도록 하였다.

- 36) 『練藜室記述』권33, 「肅宗朝故事本末」에는 1677년(숙종 3) 증광시 복시에서 사동관이 대동한 성균관 書吏 金仁傑이 시권을 다른 名紙에 이어붙이고 답안 내용도 칼로 끊어내고 고쳐 쓰려던 것을 적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중종실록』권20, 「중종 9년(1514) 9월 10일 기사」와 『명종실록』권3, 「명종 1년(1546년) 3월 24일 기사」 등에서 易書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 37) 『經國大典』, 「禮典·雜令·刑典·禁制」에 차술하거나 대술할 경우 杖 100, 徒 3년에 처하고 두 번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정지시킨다고 하였다.
- 38) 『典錄通考』, 「禮典·諸科·受教輯錄」. “中外大小科場, 借述者·代述者·帶率隨從者·不錄名擧入者·符同易書用奸者·首倡作亂罷場者, 朝官·生進, 則邊遠充軍, 勿揀赦前, 永停科舉.”
- 39) 『大典通編』, 「禮典·諸科」. “朱草用奸者, 流三千里.” 『영조실록』, 「1746년(영조 22) 7월 11일 기사」에 의하면 朱草할 때 농간을 부린 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적용되는 全家徙邊의 형율이 적용되었다. 영조 연간에 이르러서는 당사자만 3천 리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大全通編』에서 명문화되었다.

지금까지 과거담 중에서도 동접과 지동관·사동관을 통한 당대 응시 문화와 관리 일단을 살펴보았다. 박양한은 이들에게서 所從來를 통해 동접과 지동관·사동관이 나오게 된 내력이나, 그 과정 등을 간명하게 서술하였다. 아울러 이들 일화에서는 사용된 所從來의 기술은 일화 속에서 특정 인물의 시비를 분별할 뿐 아니라 주로 당대 현실을 개탄하는 데에 활용된다. 이러한 점은 규례나 실록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측면이며, 무엇보다 응시자 입장에서 과거 규례에 대한 이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 3. 비현실적 요소를 통한 급제 실현

야담에서 꿈이나 운명과 같이 인간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초월적 부분은 극적인 효과를 발휘는 서사 장치이다. 초월적이라는 말은 현실의 논리를 뛰어넘는 현상을 의미하기에 운명이나 우연은 개인의 처지를 지속하거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sup>40)</sup> 『매옹한록』의 후반부는 神異한 일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담도 사실성 못지않게 신이함인 축을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초월적 도움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 가는 내용이 확인된다.

南陽 부사를 지낸 尹榮가 젊은 시절에 謁聖試를 볼 때, 꿈에서 세 구절에 비점이 찍힌 오래된 원고를 보고 三上의 성적으로 장원을 차지하였다. 시험장으로 들어가자 과연 꿈에서 보았던 試題가 나왔다. 예전에 지었던 것이라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자부하였다. ‘이번 과거의 장원은 내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마침내 이전에 지었던 글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 게다가 윤공은 원래 글씨도 잘 썼기에 직접 정성을 다해 쓰면서 “오늘날 내 시권을 본 사람은 참으로 장원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시권 제출 시각이 임박하자 여러 친구가 좌우에서 재촉하였다. 윤공은 느긋하게 “장원이 여기 있는데, 시각이 어찌서

40) 김정·이진경, 「諧謔性으로 바라본 『瀨尾編科場』의 특징과 의미」, 『대동한문학』 64, 대동한문학회, 2020, 153면.

다했다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한 글자마다 정성을 다해 쓰면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응시하러 온 선비들을 몰아내자, 결국 윤공은 시권을 제출하지 못하고 나왔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뒤 성균관 巡題에서 또 세 구절에 비점이 찍힌 그 시제가 나왔다. 三上의 성적으로 장원을 차지하였으니 꿈에서와 똑같았다. 지난번 과거에서도 시권을 제출하였으면 마땅히 급제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일을 다 하지 못해서 급제하지 못한 것인가? 그런데 과거 급제는 빈궁과 영달에 관계되는 것이라 반드시 미리 정해져 있으니 이는 다만 귀신이 장난하는 것이겠는가?<sup>41)</sup>

인용문은 尹槩(1603~1636)가 알성시를 볼 때 세 구절에 비점이 찍힌 원고를 꿈에서 보고 이후 旬製에서 장원을 차지한다는 내용이다. 순제는 성균관에서 열흘에 한 번씩 시행하던 것으로, 1592년에 이후 폐지되었다가 이후 횡수를 줄여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sup>42)</sup> 윤계는 1624년(인조 2) 증광시 진사에 입격하였고, 문과는 1627년(인조 5) 江華庭試에 병과로 합격하였으므로, 이 일화는 1624년 이후와 1627년 이전 성균관에서 실시된 순제가 배경으로 활용되었다.<sup>43)</sup>

윤계는 1636년(인조 14)에 남양부사가 되었고 그해 겨울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려다 청나라에 잡혔으나, 굴하지 않고 대항하다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시호는 忠簡이 내려질 만큼 忠節의 대표

41) 朴亮漢, 『梅翁閑錄』下, 160화. “尹南陽槩, 少時當謁聖科, 夢遇宿稿, 批點三句書等, 三上爲壯元. 入場, 果出夢中所遇之題, 曾所著者, 心獨喜自負. ‘此科狀頭, 非吾而誰?’ 遂點竄舊作, 鍊之又鍊. 且尹公素善書, 手自精寫曰, “當今見吾券者, 稱爲眞壯元也.” 時刻漸至, 諸友左右催之. 尹公徐曰, “壯元在此, 時刻豈盡?” 精寫字劃, 略不搖動. 倏焉時過, 驅出土子, 終不及呈券而出. 其後累年, 成均館巡題, 又出其題批三句, 得三上居首, 一如夢中. 未知其科, 呈券則當捷, 而人事未盡, 不能得耶? 抑科事窮達所係, 必有前定, 此特神有以獻之耶?”

42) 실록에서는 1634년부터 순제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다. 『인조실록』권30, 「인조 12년(1634) 10월 12일」. 『인조실록』권31, 「인조 13년(1635) 7월 13일」.

43) 그의 행장에 의하면, 인조반정 전후 혼란기에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1624년에 처음 응시하였다. 金鎭圭, 『竹泉集別』, 「弘文館應教贈吏曹判書尹公謐狀」. “時際昏亂, 恥進取不赴公車, 仁祖改紀, 始中甲子司馬試. 丁卯上避寇幸江都, 公以布衣抗疏觐和議, 行在設科取士, 公擢丙科.”

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그가 꿈을 통한 급제라는 이야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또한 이 일화는 후대 야담집에 그대로 전승되기도 한다.<sup>44)</sup>

야담에서 꿈과 같은 초월적 도움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이야기는 과거담에서도 주된 양상이다. 더욱이 야담에서 꿈은 예언이나 운명과 連用되는데, 이 일화에서 꿈은 시제를 미리 알려주는 성격으로 거듭 활용되면서 서사가 전개될수록 운명과의 연계된다. 다만 이러한 꿈을 활용한 운명은 야담에서 엄숙하기보다는 극적인 장치로 활용되면서 웃음을 내포한 해학성이 두드러진다. 이 일화에서도 시권 작성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여유를 부리는 윤계의 행위에서 해학성이 확인되지만, 결국 저자인 박양한은 人事와 窮達, 그리고 前定을 문면에 거론하면서 과거 급제가 하늘이 부여하는 운명에만 국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즉 야담에서 꿈과 같은 초월적 모티브는 엄숙한 분위기로 나타났지만, 후대로 올수록 흥미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sup>45)</sup> 『매옹한록』에서는 흥미보다는 엄숙한 분위기가 보다 강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224, 226, 227화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일화들에서도 꿈은 예언과 운명의 성격에 해당한다. 또한 일화 끝부분에서 인물의 품명에 해당하는 서술은 꿈의 기이한 조짐이 바로 앞날을 예견이라 말하면서 급제할 만한 인물이 자신의 능력을 다해 급제하였다는 논조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단순히 흥미만을 추구하는 神異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sup>46)</sup>

44) 이 일화는 『紀聞叢話』(연세대본) 417화에 확인되는데 變改되지 않고 그대로 수록되었다.

45) 정술미, 「『청구야담』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7면 참조.

46) 야담에서 꿈과 같은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급제하는 일화에 대부분은 운명과 결부시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논조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매옹한록』에서 꿈과 관련된 일화에는 모두 '盡人事'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흥미보다는 엄숙함과 비장함이 두드러진다.



제상 呂聖齊가 明經科에 응시했을 때 講席에 들어가자마자 휘장 안에서 강경 구절을 쓴 종이가 나왔다. 그 종이를 보니 사서삼경에서 출제되었는데, 모두가 익히거나 외우지 못한 구절들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여공은 일어나서 뒷간에 다녀오겠다고 청하였다. 과거 시험장의 규례에는 강석에 들어온 유생이 먹을 것을 청하면 주고, 뒷간에 가겠다고 하면 허락하는 게 관례였다. 결국 시험관은 군졸에게 여공을 데려가게 하였다. 여공은 오래도록 뒷간에 앉아 그 군졸과 한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군졸이 사는 곳을 물어보니 바로 자신의 부친이 벼슬을 하고 계신 고을이었다. 그 고을의 일에 대해 대략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군졸이 “제가 여기 올 때 그 고을 기생 아무개가 편지를 써주며 여 진사를 찾아 전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여공이 “내가 여 진사라네!”라고 하며 마침내 그 편지를 받아서 보니, 바로 그가 부친을 따라갔을 때 눈이 맞은 기생이 보낸 편지였다. 이런 사이에 시간이 조금씩 지체되자, 시험관이 사람을 시켜 살피게 하였다. 그가 돌아와 말하기를, ‘유생의 손에 종이 한 장을 지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시험관은 의심스러워 결국 시험문제를 다른 구절에서 고쳐 출제하였다. 여공이 돌아와서 보니 모두 익혀 두었던 구절들이어서 마침내 급제하였다.<sup>47)</sup>

위 인용문에서는 숙종 연간 영의정이었던 呂聖齊(1625~1691)가 등장하며, 그가 明經科에 응시하는 상황이 배경으로 설정되어있다. 그의 「自叙文」에 의하면 1654년(효종 5) 親臨殿講에 大輪次로 입격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sup>48)</sup> 다만, 일화에서의 명경과는 성종대 잠시 별설되었던 명경과가

47) 朴亮漢, 『梅翁閑錄』下, 230화. “呂相國聖齊, 明經應舉時, 纔入講席, 自帳內出講紙, 見其七書所出, 皆非習誦之章, 無可奈何. 請起如廁, 試院之規, 講席儒生, 請飲食則饋之, 請便旋則許之, 例也. 遂令軍卒領送, 呂相許久坐廁上, 與軍卒問答閑說話, 問卒之所居, 卽其父所莅之縣也. 略與酬酢邑事, 卒曰, ‘來時邑妓某付書, 使之尋傳於呂進士, 不知在何處.’ 呂相曰, ‘我爲呂進士!’ 遂取其書覽之, 卽其隨往時所謁妓也. 如是之際, 時刻漸遲, 試官使人視之, 歸言, ‘儒生手持一紙.’ 試官疑之, 遂改出他章, 呂相來見, 皆所習之章, 遂登第.”

48) 呂聖齊, 『雲浦遺稿』권4, 「自叙文」. “甲午, 初授濟用監參奉不仕, 五月, 孝廟親臨儒生殿講, 入侍講周易, 得恩賜二分, 大輪次入格. 又得恩賜二分, 直赴會試. 除司饗院參奉康陵參奉, 皆不仕. 式年講經得十分, 生畫得十分, 參會試壯元, 殿試擢甲科第三名.”

아닌, 식년 문과로 보인다. 이 시기 식년 문과에서 강경의 비중이 높아지자 경학에 자신 있는 응시자들이 주로 식년 문과에 응시하였고 제술에 능한 자들은 별시나 정시 등에 응시하는 풍조가 강하였기에 식년 문과를 명경과로 인식하였다. 17세기에 이르면 식년문과에 급제한 경우를 明經及第, 식년문과를 明經科로 칭한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다.<sup>49)</sup>

이 일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옹한록』 과거담의 특징을 보여주는 데, 첫째는 講經科의 규례를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경국대전』에서부터 『대전통편』에 이르기까지 강경에 대한 규칙은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이 일화에서는 시관이 장막 속에 강독 구절을 제시하는데, 이는 응시자와 평가자를 분리해 서로가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인 隔帳法이다. 이 법은 종종 39년 정식화되었고 『典錄通考』에 이르러 구체화 되었다.<sup>50)</sup> 그럼에도 실제 강경시험에서 응시자의 요청사항이나, 관리자의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역사 기록에서도 시험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응시 과정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다. 야담은 역사 기록처럼 사실성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강경에서 응시자가 음식과 용변과 같은 요청을 할 수 있고, 시관은 수렴해야 하는 상황을 엿볼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전술한 과거담이 꿈과 관련된 것이라면, 위 인용문은 우연한 도움으로 인해 급제한 이야기다. 야담에서 비정상성을 바탕으로 있을 법한 이야기로 구현하는 방식은 독자에게 흥미와 웃음을 유발하게 한다. 특히 역사적 인물이나 구체적인 장소 및 배경을 활용함으로써 곡진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는 첫 번째 특징과도 연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일화에서는 기생의 편지로 인해 상황은 급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여성제는 입격하게 된다. 이처럼 야담에서 신이함은 시험 배경

49) 박현순, 「조선시대 식년문과의 성격 변화」, 『민족문화연구』9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2, 167~168면 참조.

50) 『增補文獻備考』권187, 「選舉考」4. “科舉講經試, 隔以來帳, 使不得與舉子相見, 臺諫則分坐帳外, 舉子入門時錄名, 舉子名下及其名紙上端, 書填字號.”

과 시험 과정을 충실히 재현하며 현장감을 구현한 것과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정상성을 통해 흥미와 웃음을 유발한다.

그런데 조선 후기 야담에서는 우연과 같은 비정상성이 동원되는 것은 합격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비들의 맹목적인 욕망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한 맹목적인 욕망은 부정행위가 동원되면서 욕망에만 충실한 세태를 풍자하려는 목적성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응시자가 출세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고뇌 등은 문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이 일화 또한 노력과 고뇌를 통한 욕망의 절실함은 보여주지 않지만, 급제라는 맹목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부정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또한 꿈이나 우연이 응시자의 욕망을 실현하는 장치로 동원된다는 점도 유사하지만, 풍자나 비판의 시선은 확인되지 않는다.<sup>51)</sup> 이러한 양상은 223화에서도 확인된다. 許頊(1548~1618)이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안동에서 서울로 가는 도중 주막에 어느 선비가 놓고 간 사륙문을 모아 놓은 책을 보고 급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험장에서 책을 보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이를 스스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허욕의 성품으로 인해 하늘이 도움을 준 것이라는 시각이 담겨 있다.<sup>52)</sup>

이처럼 『매옹한록』의 신이한 급제담은 웃음을 내포한 해학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초기 야담에서의 엄숙함이 두드러지면서, 해학과 풍자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또한 신이한 이야기는 후대로 갈수록 등장인물이 실존 인물에서 가상 인물로 변화하면서 흥미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전개

51) 이 일화는 『瀨尾編』에 의해 變改되고 『靑邱野談』으로 전승된다. 한편 『紀聞叢話』에는 변개되지 않고 전승된다. 김정·이진경, 앞의 논문, 171~172면 참조. 이들 과거담의 변개와 전승은 지면을 달리하여 차후 논하고자 한다.

52) 朴亮漢, 『梅翁閑錄』下, 223화. “(前略) 許袖往入場, 旣不能自製, 但繙閱其冊, 果有科題一篇, 寫呈得第. 許性質實, 每歷歷自言其無文得第之由, 人多許其忠朴, 致位至左相.”

되는데, 『매옹한록』에서는 흥미보다는 등장인물의 성품이나 행위와 연계하여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 IV. 나오며

『매옹한록』 과거담의 특징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반영한 사실성과 꾸며낸 이야기로 구성된 허구성이 병존한다.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구명되었다. 그러나 과거담에만 제한한다면 허구성보다 사실성이 강조된다. 사실성의 경우 초기 야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당대 과거와 관련된 인물과 사건에 대해 비판과 문제의식을 지닌다. 이에 대한 박양한의 개인적 시각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가계 및 소론계에 해당하는 인물과 그들의 경험이나 전언을 통해 일화가 구성되고 있다는 점, 아울러 일화에 거론된 인물들이 소론계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당파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현실비판과 관련된 과거담 대부분이 인조반정 전후가 배경인데, 이 시기는 당쟁이 격화되며 특정 권력에 의해 관직이 점유되고 나아가 인재 선발의 통로인 과거도 독점함으로써 과거가 지닌 공정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따라서 권력 투쟁에서 개인보다는 집단의식이 『매옹한록』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다만 현실에 대한 비판은 노골적으로 구체적인 당파를 지목하기보다 특정 인물에 제한한다거나, 제도의 유래 및 과정을 통해 당대 현실과의 대비가 주된 논조이므로 개탄의 성격도 병존한다. 아울러 당파와 같은 집단의식을 드러내면서도 윤지원, 채유후 등 응시자 입장에서 개인의 대응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매옹한록』은 正史에서 확인되지 않은 인조반정 전후 과거와 관련된 사건의 이면을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이해의 폭 넓히는 데에 일조한다.

다음으로 허구성의 경우, 『매옹한록』에는 꾸며낸 이야기에 해당하는 일화가 과거담의 한 축을 구성한다. 허구성의 주요 요소인 꿈과 우연을

통해 응시자가 급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린다는 면에서 여타 야담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매옹한록』 소재 과거담에서 비정상성이라 할 수 있는 神異한 이야기는 급제에 대한 욕망이나 급제의 과정에 예기치 못한 전개로 인해 웃음과 흥미를 유발하기보다는 초기 야담에서 확인되는 엄숙한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물론 웃음이나 흥미가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꿈과 우연은 모두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성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도덕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또한 『매옹한록』에서 서사성의 강조된 일화는 후대 야담으로 전승된다. 조선 후기 야담에서 서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과거담에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대부분 가상 인물로 설정된다. 이때 가상 인물로의 설정은 사실성과 대비되는 허구를 동원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치열한 욕망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고 비정상성을 가늠케 하며, 웃음과 함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長篇을 이룬다.

3장에서 소개한 160, 230화는 동일한 내용으로 『기문총화』에 전승되고, 230화는 『瀨尾編』에 의해 變改되어 『靑邱野談』에 전승된다. 특히 『영미편』은 『매옹한록』의 일화와 비교했을 때 장편이고, 실존 인물인 呂聖齊가 가상 인물로 설정되어있으며, 서사 전개에 세세한 묘사와 치밀한 구성이 더해졌다.<sup>53)</sup> 이를 통해 『영미편』의 일화는 웃음과 해학은 강조되고 있기에 풍자적 측면이 우세하다. 이에 반해 『매옹한록』은 흥미보다는 초기 야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엄숙함이 우세하면서, 이와 동시에 웃음이 가미된 서사성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매옹한록』에 담긴 과거담에서 신이한 일화는 초기 야담이 후기 야담으로 변개 및 전승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17세기 『어우야담』과 19세기 『기문총화』나 『청구야담』을 이어주는 가교적 위치를 점한다.

이는 사실성 측면에서도 확인되는데, 『매옹한록』의 사실성은 초기 야

53) 『영미편』의 저자인 李運永은 노론계 인물이며, 230화 등장하는 여성제는 소론계 인물이다. 이운영이 『매옹한록』을 보고 의도적으로 변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당파적 입장이 반영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담인 『어우야담』의 성격과 유사하다. 조선 후기 야담에서 과거시험에 대한 비판은 주로 法制보다는 응시자의 증가에 따른 科場의 관리, 黨派 및 부정행위에 의한 선발의 공정성 등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에 반해 『어우야담』에서는 신분제에 따른 응시 규례와 같은 법제에 주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sup>54)</sup> 『매옹한록』에서도 당파에 따른 부정행위를 통해 공정성을 비판하는 일화가 확인되면서도, 전체적인 논조는 과거가 인재 선발이라는 기본 목적을 반영하여 과거 규례에 근거한 비판 및 개탄의 특징이 확인되기에 초기 야담과 후대 야담의 특징 병존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매옹한록』은 조선후기 야담이 지닌 사실성과 허구성이 병존하는 큰 흐름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현전하는 야담이 주로 노론 계열인데, 『매옹한록』은 소론계 인물의 저작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여타 야담에서 확인되지 않는 일화가 즐비하다. 특히 인조반정 전후 내용을 후대 소론계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과거담에 제한하여 살필 수 있었다. 다만 작가의 저술의식과 등장인물의 정치적인 배경 등에 대한 전모는 다루지 못하였다. 아울러 『매옹한록』은 후대 변개 및 전승되는데 이 또한 부분적인 언급에 머물렀기에 여타 야담 자료와의 충실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 논문투고일: 23.06.16 / 심사완료일: 23.06.25 / 게재확정일: 23.06.28.

54) 『어우야담』의 과거담은 야담이 지니는 이야기적 면모나 일화를 통해 자신의 시선을 반영하는 풍자적 면모가 병존하지만, 사실성이 강조되는 일화가 우세하다. 김경, 「『於野談』의 ‘科擧談’ 양상과 특징」, 『고전과 해석』38, 고전문학한문학회, 2022, 272~279면 참조.

## <참고문헌>

### 1. 자료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 센터(<http://kostma.korea.ac.kr/>)

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 2. 논저

김 경, 「事實性으로 바라본 『瀨尾編 科場』의 특징과 의미」, 『동양고전연구』80, 동양고전학회, 2020.

김 경·이진경, 「諧謔性으로 바라본 『瀨尾編 科場』의 특징과 의미」, 『대동한문학』64, 대동한문학회, 2020.

김 경, 「『於于野談』의 ‘科學談’ 양상과 특징」, 『고전과 해석』38,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2.

김동욱 옮김, 『國譯 紀聞叢話』, 아세아문화사, 2008.

김동욱 옮김, 『국역 매옹한록』, 보고서, 2106.

김민혁, 「박양한의 매옹한록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5.

김준형,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39, 동방한문학회, 2009.

문미애, 「『매옹한록』의 이본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14.

박현순,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 2014.

박현순, 「조선시대 식년문과의 성격 변화」, 『민족문화연구』9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2, 167~168면 참조.

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원창애 외5, 『조선 시대 과거 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이강옥 옮김, 『청구야담』상, 문학동네, 2019.

이강옥, 『한국야담연구』, 돌베개, 2006.

- 이경우, 『한국 야담의 문학성 연구』, 국학자료원, 1997.
- 이성무, 『韓國의 科擧制度』, 한국학술정보(주), 2004.
- 임완혁, 「筆記에서 사실의 의미 - 『학산한언』을 통해 본」, 『동방한문학』39, 동방한문학회, 2009.
- 정솔미, 「『청구야담』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순희, 「『매옹한록』(동양문고본) 해제」,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 센터.
- 정순희, 「『매옹한록』에 대한 문학학적 고찰-장서각본과 天理大本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76, 한국언어문학회, 2011.
- 정준식, 「18세기 야담집의 동일 구전이야기 수용과 그 의미」, 『동방한문학』39, 동방한문학회, 2009.
- 정환국, 『정본 한국 야담전집』2, 보고서, 2021.
- 허경진, 『허균평전』, 돌베개, 2002.



## Abstract

*A Study on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Maeonghannok』 / Kim, Kyu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Maeonghannok』 through the material aspect of the state examination. To this end, all anecdotes related to the state examination is referred as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科擧談)'. Subsequently after classifying the stories by subject, sources of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Maeonghannok』 were confirmed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related various recor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Maeonghannok』 are that factuality reflecting actual events and fictiveness consisting of made-up stories coexist, while factuality is more emphasized than fictiveness. In addition, more factual anecdotes reveal the author Park Yang-han's partisanship in terms of showing us his family line and figures of So-ron faction(少論系) and their stories. Furthermore,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and later Yadam in 『Maeonghannok』 coexist because there is criticism based on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examination.

In the case of fictiveness, a solemn atmosphere is noticeable in anecdotes corresponding to the unusualness such as dreams and coincidences. Because both dreams and coincidences has inevitable and fateful aspects, it is identified that there is tendency to pursue a moral ideology in anecdotes, even though the unusualness is not without laughter or an interest at all. In addition, anecdotes emphasized with narrativity in 『Maeonghannok』 are passed down to the later Yadam. In other words, a solemn atmosphere is predominant rather than an interest and at the same time narrativity with laughter is discovered in 『Maeonghannok』. Therefore,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Maeonghannok』 occupy a bridge position in Yadam of the the 17th and 18th century in terms

of its contents and implementation methods.

**Key words:** Maeonghannok, Park Yang-han, State Examination, Yadam, State Examination Stories, Factuality, Fictiveness.

## &lt;부록&gt; 『매옹한록』 소재 과거담 이본 대조표

연 번	구 분	작 품	천리대 (46)	버클리 (46)	조선대 (46)	동양문 고(44)	장서각 (31)	규장각 (31)	야승 (31)	한고관 (24)	패림 (24)	고려대 (11)
1	上	11	○	○	○	○	○	○	○	×	×	○
2		19	○	○	○	○	○	○	○	×	×	×
3		27	○	○	○	○	○	○	○	×	×	○
4		30	○	○	○	○	○	○	○	×	×	○
5		40	○	○	○	○	○	○	○	×	×	○
6		42	○	○	○	○	○	○	○	×	×	○
7		45	○	○	○	○	○	○	○	×	×	×
8		49	○	○	○	○	○	○	○	○	○	×
9		55	○	○	○	○	○	○	○	○	○	×
10		88	○	○	○	○	○	○	○	○	○	×
11		98	○	○	○	○	○	○	○	○	○	×
12		100	○	○	○	○	×	×	×	×	×	×
13		103	○	○	○	○	○	○	○	○	○	×
14		104	○	○	○	○	×	×	×	×	×	×
15		109	○	○	○	○	×	×	×	×	×	×
16		110	○	○	○	○	×	×	×	×	×	×
17		113	○	○	○	○	○	○	○	○	○	×
18		119	○	○	○	○	×	×	×	×	×	×
19		122	○	○	○	○	○	○	○	○	○	×
20		129	○	○	○	○	×	×	×	×	×	×
21		134	○	○	○	○	×	×	×	×	×	×
22		135	○	○	○	○	×	×	×	×	×	×
23	下	157	○	○	○	○	○	○	○	○	○	×
24		158	○	○	○	○	○	○	○	○	○	×
25		159	○	○	○	○	×	×	×	×	×	×
26		160	○	○	○	○	○	○	○	○	○	×
27		161	○	○	○	○	○	○	○	○	○	×
28		163	○	○	○	○	×	×	×	×	×	×
29		164	○	○	○	○	×	×	×	×	×	×
30		175	○	○	○	○	○	○	○	○	○	○
31		186	○	○	○	○	×	×	×	×	×	×
32		187	○	○	○	○	○	○	○	○	○	○
33		196	○	○	○	○	○	○	○	○	○	×
34		207	○	○	○	×	○	○	○	○	○	○
35		209	○	○	○	○	○	○	○	○	○	○

36	214	○	○	○	×	×	×	×	×	×	×
37	215	○	○	○	○	×	×	×	×	×	×
38	221	○	○	○	○	○	○	○	○	○	×
39	223	○	○	○	○	×	×	×	×	×	×
40	224	○	○	○	○	○	○	○	○	○	○
41	225	○	○	○	○	○	○	○	○	○	×
42	226	○	○	○	○	○	○	○	○	○	×
43	227	○	○	○	○	○	○	○	○	○	×
44	228	○	○	○	○	○	○	○	○	○	×
45	229	○	○	○	○	○	○	○	○	○	○
46	230	○	○	○	○	○	○	○	○	○	×